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통 일 원

'
'

'

'

...
'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연구책임 : 陳德奎 (이화여대교수)



통 일 원

1. 이 자료는 우리 원이 북한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북한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으로 위촉한 결과보고서 임
2. 이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견해는 아님.

차 례

1. 문제의 제기	3
2. 북한 지배체제의 항상성과 변용성	9
1) 외삼국가체제로서의 초기 북한 사회의 일반적 전개 ...	9
2) 소위 혁명적 민주기지로서의 북한체제 강화기	17
3) 주체사상에 의한 신정체제	22
4) 북한 지배체제의 항상성과 변용성	29
3. 지배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내용과 전개	35
1) 주체사상의 유물사관적 기반	35
2) 주체사상의 역사적 전통성	42
3) 주체사상에서 제3세계 반제 혁명론의 수용	46
4. 김일성 지배체제 통치양식	53
1) 가족체 전체주의 체제	53
2) 유기체적 통치양식	60
3) 교차적 사회구조에 의한 견제양식	64
5. 세계체제의 변혁과 북한체제의 대응성	67
1)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67
2)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과 소련의 해체	72
3) 걸프전 이후의 신세계 체제의 구축	76

4) 국제관계의 상황변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78
(1) 정치이념의 변용	80
(2) 국제관계에서의 평화지향성	82
(3) 북한의 내적 사회구조의 부분적 재편시도	84
(4) 정치경제의 분리적 지향	86
6. 북한 지배체제의 이념적 전환시도 - 민족주의의 지향...	89
1) 북한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90
(1) 민족의 개념	91
(2)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92
2) <민족문제>로 부터 민족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 ...	96
3) 민족주의 지향의 의도성	99
4)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동원	106
7. 결론: 북한 지배체제의 미래	
- 민족주의에 의한 위기탈출의 모색	112
1) 인식을 위한 몇가지 기준	112
2) 체제변혁의 가능순위	115
3) 민족주의에 의한 위기탈출의 모색	117
<참 고 문 헌>	120

1.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북한의 김일성 지배체제에서 일관적으로 관류하고 있는 이른바 주체사상의 통치양식에서 몇가지 변화양상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지배체제는 급격하게 변모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존립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정책기조에서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 사회의 내재적 변화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예감하게 한다.

물론 북한 사회의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단지 국제질서의 재편에서 빚어진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지배체제적 성격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회주의적 전제체제의 본질적 위기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사회 변화의 현실적인 성격과 나아가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배체제 내적 성격 그리고 그러한 파장이 몰고 올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북한 사회를 단순히 현존지배체제의 외연적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한다거나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 대응하거나 심지어 몰락된 사회주의 체제권

의 파장을 차단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체제의 세습적 권력승계에 따르는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북한사회가 단일적 지배체제와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일종형태의 통치구조로 공고화된 사회구조라 해도 변화는 필연적인 사회관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북한사회의 미래적 존재양식을 사전에 예감하는 일은 그 체제에 맞서있는 한국의 위치에서는 하나의 필연적인 과제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 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 중심 주제로 삼으려고 한다.

1. 북한 사회의 통치구조에서 지배체제와 이념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념과 현실의 거리 관계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산정에서 특히 이념적 체계로 논의되어야 할 이른바 주체사상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단지 그것의 의미분석에 치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 통치차원에서의 구속력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2. 북한 지배체제의 성격과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서 변화의 일상성과 급격성의 중요한 인자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변

화라고 할 경우 그것의 일상적인 변화의 의미와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성격을 예상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북한 사회에 급격한 충격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등에 대한 영향이 미칠 효과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3.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내외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상적 보완작업의 내용에 대한 예측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북한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전체성을 기반으로하는, 다시말하면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치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적 지주의 지속성에 의하여 체제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주체사상에서 현대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르는 자기변용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4. 북한의 사상적 성격, 즉 주체사상에서 변용이 어느 정도일 것이며 그것이 특히 민족주의의 함의성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될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함의성이 가질 수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려는 것이다.
5.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북한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민족통일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

족적 통합의 이론적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에 입각한 대북한 통일정책을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내용으로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 연구는 그 구체적인 전개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접근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것은 시차적 대조방법과 문헌을 중심으로하는 내용 분석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차적 대조방법은 북한 사회의 기본원형을 규정하고 이것에 의하여 북한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들속에 함유되어 있는 항상성과 변용성의 내용을 각기 설정하여 대비하려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속에 항상성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의미로서의 변용성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차적 대조법은 기본원형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원형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에 놓여 있는가를 논의함으로써 그 변용성을 밝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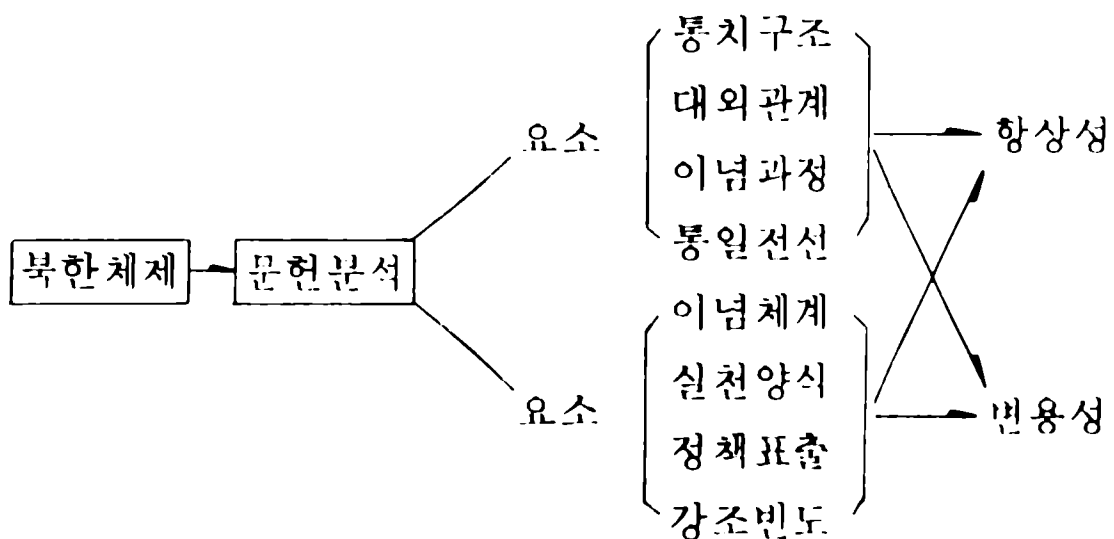
둘째로 북한 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주체사상을 논

의하거나 또는 통치이념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일련의 연관된 중요 문건을 중요 항목별로 내용분석하여 그들 간의 중요도를 상호 고찰하는 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려는 것이다. 중요 문건에 대한 내용분석은 자연히 그 중요성에 비추어 강조의 가능성을 추출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폐쇄사회에서는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북한에서 간행된 중요한 문건들 즉 신문과 잡지 등 중요 기록물에서 이러한 성격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시차적 대조법과 문헌 내용분석방법을 함께 동원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가능해진다.

북한 체제 인식을 위한 방법론

시차대조 년도 1989. 1991. 1993-5.



위의 그림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북한 사회와 그 변화 가능성에서 미래적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대북통일에 대한 정책적 대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나아가 민족적 정당성을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민족사회의 통합적 주도권에 의한 통일민족사회를 이룩하는 이념적 가능성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이 연구는 보다 정책적 성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론적 분석론에 치중하기 보다는 현실적 대안성의 확보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2. 북한 지배체제의 항상성과 변용성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체제는 일정한 항상성과 변용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북한 사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최소한 지배체제로서의 기본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의 항상성과 변용성을 밝히는 작업은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먼저 북한사회 지배체제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에 의하여 항상성과 변용성을 인식하기로 한다.

1) 외삼국가체제로서의 초기 북한 사회의 일반적 전개

북한 사회의 지배체제는 기본적으로 외삼국가적 지배체제의 전형으로 시작되었다. 외삼국가의 성격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민족국가로서의 형성과정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민족사회의 구성원이 민족적 열정을 바탕으로 하는 주권독립의 자주국가형성에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외삼국가체제는 이러한 성격과는 달리 민족의 절대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영향에 의하여 그 제국주의 국가가 의도하는 종속적 국가를 형식적으로 수립하여 마치 독립국가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권력의 장악자도 제국주의적 강대국의 자의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획정되고 심지어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 조차도 제국주의 국가에서 파견된 고문관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다만 이와같은 외삼국가체제는 매판정권이나 단순한 괴뢰정권과는 차이가 있는데, 매판정권은 국내의 매판적 상인자본가가 외국의 강대국 지원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일종의 종속적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괴뢰정권은 실제 정치권력과 그 전개과정에서 독립국의 개별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외삼국가체제와 유사하지만 정권장악자가 국내의 인사로 등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삼국가체제와 차이가 있다. 외삼국가체제에서는 국내의 정치권력장악자를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대국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중에서 선택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북한체제가 외삼국가체제라고 할 수 밖에 없음은 실제로 북한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국내의 인사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소련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던 한국계 소련인들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한국과는 단절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소련군이 북한 사회에 진주하고 이어서 소련군에 의하여 정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함께 북한에 유입되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그들의 의지와도 무관하고 심지어 한국의 국민적 의지와도 무관한 오직 소련군의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북한 사회에서 외삼국가체제로서의 전개양상은 대체로 시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외삼국가체제로서의 북한 정권의 전개과정

단계설정	시기	권력구조의 특징
1. 외삼국가체제 수립기	1945-1948	소련군정에 의한 배타적 영향력의 행사와 김일성 지배체제화를 위한 소련군의 억압적인 통제화의 행사기간
2. 외삼국가체제 확정기	1948-1955	한국전쟁을 기회로 하여 김일성 지배체제화를 확정할수 있었고 전쟁의 대결심리의 확장을 고조화하여 김일성의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남로당계의 숙청으로 김일성단일 지배체제 확립
3. 외삼국가체제 변동기	1955-1962	외삼국가로 부터 이른바 혁명적 민주기지로서의 획일적인 김일성 지배하의 통제사회의 지향과정

위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사회에서 권력의 행사 과정은 처음부터 민족국가의 형성과는 무관하였다. 외삼국가체제의 기본적 특징을 보여주었지만 이를 단지 민족적 성격이 가미된 것처럼 논리화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소련군의 북한 지배화의 한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북한의 외삼국가적 지배체제가 그 당시에 보여주었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외삼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소련군은 북한에서의 김일성과 경쟁적 위치에 놓여 있었던 제반 정치세력을 일소하였다. 소련군은 김일성을 북한에서의 정치권력장악자로 선정한 후 그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김일성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정치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제거 방법은 주로 정치적 테러의 수법을 자행하거나 또는 정치범으로 처단하거나 심지어 소련이나 중국과 연관된 인사에 대해서는 이들을 소환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2. 외삼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권력의 장악자로 선정된 김일성을 국민적 지도자로 옹립시키기 위한 미화작업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일성에 대한 과잉적인 지도자 신화화의 주장이었다. 김일성이 소련군의 초급장교로서 활동하였던 사실과 동만주 일부

지역에서 미소한 비적적 반일 활동을 보여주었던 사실을 확대하여 미화함으로써 그를 마치 독립운동 선상에서의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가공화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국민들 심정에서 반일 민족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의 기대심리에 적실성있게 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마침내 김일성의 개인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열어가게 되었다.

3. 외삼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소련군의 구체적인 작업은 정책적으로는 급격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친일세력의 숙청이라는 명분을 과도하게 활용하였으며 북한 전역에 사회주의적 조직체제를 수립하였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도 소작농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았지만 마치 북한 사회에서 지주의 횡포가 극심하였던 것처럼 선전 선동함으로써 전통적 농촌공동체의 성격을 와해시켰다. 이러한 와해를 통하여 마침내 새로운 사회구조로서의 사회주의적 조직체를 조성할 수 있었다.

4. 외삼국가체제로서의 북한은 소련군에 의하여 조성된 기반을 김일성이 이어받아 소련군의 정책적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를 일층 가열시킴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전쟁적 대결심리로 지향하게 하였는데

그 일차적인 대결 대상이 국내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으로 국한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킴으로써 반일감정을 고조화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생취할 수 있었다.

5. 외삼국가체제의 기본적 유지 양식은 일반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과 이른바 철의 규율에 의하여 조직되었다는 공산당을 가동시켜 전국민에 대한 폭압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조직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회구조는 한국의 전통적 정치구조의 한 변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제도와는 달리 쉽사리 주민들의 묵시적 추종을 확보할 수 있었다.

6. 외삼국가체제가 김일성의 지배체제로 그 공고화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었음은 한국전쟁의 영향에 기인된 결과였다. 한국전쟁은 전체 주민들에게 전쟁의 대결 심리를 조성시켰고 심지어 '적과 아방의 관계'에 서게 하였다. 그 결과 북한 사회의 주민통합을 강화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외삼국가체제의 이러한 성격은 결국 김일성 정권 자체가 민족국가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민족적 지지위에 설 수 없었다는 한계로 권력의 기반을 소련군의 지배와 영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 지배체제는 점차 지배세력의 특정성을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마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당면과제인 것처럼 설정하여 이를 이론화하고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외삼국가체제의 공고화 단계에서 보여 주었던 다음의 문건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전체 조선 인민을 옳게 인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기초 건설 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단계에 있어 우리 당의 기본 임무입니다.”(김일성 선집 4권 :570)

즉 위의 구절은 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행해진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했던 보고의 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김일성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였으며 박헌영 등 남로당계의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전쟁 이후의 권력체계의 확립에 매진하였던 기간이었다. 그의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제국주의의 식민체계가 걸잡을수 없이 허물어져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혁명진지가 더한층 공고화되고
전당이 병합하는 수평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두리의 근대 동력 당과 대중과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
와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제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정치
사전:798)

구체적으로 당시 김일성은 남로당계의 숙청을 전후로 하
여 사상에서의 견결한 통일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으며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반대되는 또는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세세력이나 주
장을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라고 규정 비판하였다.
이들에 대한 철저 배격이 요청되며 그러한 과제의 실천이
야말로 시급히 요청되는 당 중앙의 결정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김일성 자신의 주장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종파주
의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그들의 사상 근원은 어디에 있는
가를 당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종
파분자들이 발붙일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종파에 걸리지 않게 하며 누가 걸자고 하
면 벌써 그것을 알고 반대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는 당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 중앙을 옹호하는 것입니
다. 중앙이 없이는 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저작선
집 2권 :126-8)

2) 소위 혁명적 민주기지로서의 북한체제 강화기

외삼국가체제로 시작된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한국전쟁을 경과함과 동시에 점차 김일성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김일성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작업은 전쟁에 의한 군중의 전쟁심리 이용과 전쟁에 대한 일련의 문책성 숙청을 통하여 남로당계의 인사들을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김일성 독재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당시 북한이 이룩하려는 가장 중요한 구호성 논의는 바로 '혁명적 민주기지'를 북한 사회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혁명적 민주기지는 시기적으로는 대략 1962년 12월 10-1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전의 천리마 운동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를 각급 작업장에서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일면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화통일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제반 시도를 총동원함으로써 그 자신의 지배 권력을 한층 더 공고화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혁명적 민주기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것은 북한 사회에서의 김일성 지배 체제의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그것은 남한에 대한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성의 사회변혁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셋째,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새로운 북한 사회의 김일성 지배체제에 의한 건설을 다그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3가지 사실을 인식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김일성이 의도하였던 혁명적 민주기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이점에 대하여 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을 옳게 영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기초 건설 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입니다.”(김일성선집 4권:570)

김일성이 말한 혁명적 민주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기초건설사업의 완수로 규정하였는데 그중에는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5개년계획을 성공하여 그들이 말하는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일성 중심의 당의 중심적 역할을 고양시켜 그것에 의한 남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은 이른바 이미 그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소위 천리마 운동의 강화로 전개되었다. 그 당시 천리마 운동은 북한에서의 이른바 주체적 사회주의 경제활동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장되었으며 그것에 의하여 전체 인민의 새로운 편제와 동원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천리마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 스스로 이를 규정하여 “천리마 운동은 경제 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 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228-9)

본래 이 운동이 주창된 것은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당시 김일성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 시키는 우리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당의 총로선이 되었습니다. 이 로선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 데 있습니다. ...천리마 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 교

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 전진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50)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은 당시 북한 사회에서 전체 인민을 철저한 공산주의적 삶의 양식에 복종하게 하고 당의 통제하에 묶어 뭉으로써 김일성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조처는 특히 소련에서 스탈린의 사망이후 새롭게 전개되었던 스탈린 격하운동과 후루시초프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이른바 동서 공존적 화해상황에 대한 자기 방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김일성의 북한 사회는 이전의 외삼국가체제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나서 김일성의 공고화된 지배체제에 입각한 강력한 전제주의적 체제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천리마 운동에 병행하여 김일성에 의하여 강조되었던 대안의 사업체제는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에서 직접 경제발전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현장지도는 소위 청산리정신을 경제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생산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정치사전 :297)로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넓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한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윗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 사이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생산자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많이 체현한 기업관리 형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442)

즉 대안의 사업체계는 일종의 경제적 사업장에서 정치적 균중주의적 동원성을 강조하면서 이전까지 북한 사회에서 계획·지도·실천의 각 단계의 분야를 작업장의 기사장의 지도하에 통일시키고 사업장의 종사자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균중주의를 주입하여 혁명적으로 생산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한 작업장에서 통일된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이룩하여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도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보여주고 있었던 방만한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 당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앞에서 말한 김일성의 개인우상숭배를 사회주의 사상속에 접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주체사상의 이념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중심의 강력한 전체주의적 전체정치가 자리잡게 되

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이른바 외교에서의 주체를 내걸고 등거리 외교로서 중도적 위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균형자적 위치를 추구하였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말한 천리마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대중을 단지 생산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사회구조의 재편작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면 김일성의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의 실천이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3) 주체사상에 의한 신정체제

196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북한 사회에서는 그 이전의 사회주의적 체제수립에서 성격적인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용은 단순히 이념적인 변모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제 자체의 내용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사회는 60년대 중반기 이후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동서 공존의 화해와 함께 부분적으로 제3세계 몇몇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냉전체제적 군사갈등을 눈여겨 보면서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자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경제화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도를 봉치적 차원에서 모색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모색은 일반적으로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 일군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우리의 선전사업은 많은 점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졌다. 주체가 없는 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결함이다. 조선혁명이야 말로 우리 당 사업의 주체다”(김일성저작선집 1권:560) 라는 표현에서 주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그후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에는 <정치에서의 자주>,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 1966년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는 이보다 훨씬 뒤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출은 조선로동당의 당 이념으로 채택된 1970년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였다. 이 대회는 1970년 11월 2-13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민중동원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건설 6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체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그 이전 까지만 해도 순수히 사회주의 체제로 지속될 것임을 다짐하였던 주장을 새롭게 변형한 김일성 지배논리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60년대 중반기 소련에서 보여주었던 일종의 수정주의적 성격에 대한 공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 김일성은 공개적으로 수정주의를 공박하였다. “어떤 사람이 맑스·레닌주의를 버리고 수정주의의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요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혁명가요에 있는 바와 같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결의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3권 : 326)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념화의 성격을 그대로 밝힌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이념적 변화의 상황에 적응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하여 북한 사회 자체의 이념적 사회주의 재강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모색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주체사상인데 이 점에 대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 우리 당 안에는 유일 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 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 단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총결기간 당 사업에서 이

특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한 기본요인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 활동에서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502-11)

당시 김일성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주체사상은 이른바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시기에 독창적으로 구상하였던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는데 즉 항일혁명과정에서 조선의 혁명은 조선인의 주체적인 의지와 투쟁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상의 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사상이 그 뒤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사회에 알맞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적 주체는 곧 맑스·레닌주의를 올바르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조선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그 뒤 점차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는 동질적 차원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초기의 맑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그것의 수용에 대한 태도로 설정하였던 논리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즉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를 동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점점 주체사상 그 자체에 비중을 더 주게 되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핵심을 밝혔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리 당의 대내외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 각 분야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침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로선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위의 글:7)

이러한 그의 주장은 자연히 주체사상을 김일성 자신의 통치이념으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통치양식에서 이른바 신정체제적 성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주체사상은 곧 사회주의 국제연대의 내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외관상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주의를 북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종의 독자노선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서 사회주의 강대국인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확고하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체사상의 구체화는 이를 중심으로 김일성의 개인우상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으며 김일성 통치구조의 확고한 신정체제로서의 주민

동원적 속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신정체제의 이러한 사정은 여기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1. 주체사상을 기본적이고 유일적인 사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상적으로 전체 주민을 일정한 신념체제로 무장시켰다.
2. 권력구조를 일정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화로 설정하였으며 그 최고의 정점에 김일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연계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통치 집단을 설정하였다.
3. 권력구조의 중요한 기구로서의 조선로동당, 군부, 정보기관, 관료집단의 4개기관을 일정한 영역에 의하여 구분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 상호간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통제와 견제 그리고 체계라는 위계조직의 기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4. 전체 주민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일정한 규정에 의한 생활양식으로 통제할 수 있게 조직화하였다.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일정한 생활의 양식으로 일률화함으로써 획일적 사회구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5. 생활의 단순성에서 오는 전체 주민의 의식의 단순화

에 주체사상과 같은 일정한 사상체계를 주입시키고 그것에 의한 철저한 의식화는 이념적 단일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6. 이러한 이념적 단일성은 사회적 희생과 전체에로의 귀일에 그 가치를 둠과 동시에 나아가 이른바 남조선 해방의 목표 설정과 그것을 위한 현실적 희생의 수용에 만족하게 하는 정신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였다.
7. 그러므로 김일성은 북한 사회에서 마치 특정 종교의 교주로 군림할 수 있었고 김정일은 일종의 사제장과 같은 위치를, 그리고 전체 주민은 그 종교의 교도로 기능하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종교집단과 같은 신정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한 사회의 이러한 신정체제로서의 획일적 조직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성격의 충격의 일상성을 반복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첫째, 대외적으로 적대세력의 설정과 그것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주민에 대한 대결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정체제는 순교자적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신정체제는 통합의 구심점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군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현실적으로 북한 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에 대한 적대적 투쟁 관계를, 이른바 남조선해방을 이룩하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하여 약탈받고 있는 남조선 형제들을 해방하기 위한 순교자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로서 김일성의 이상화에 의한 전체 주민의 자기 도취감을 고조시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 지배체제의 항상성과 변용성

북한 지배체제의 이러한 전개과정은 그 지배체제의 내적 항상성과 변용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게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지배체제에서의 항상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지배체제의 항상성은 “정치체제로서의 일관된 성격을 보여주는 지배 특징을 의미하며 이것에 의하여 그 지배체제의 전반적인 성격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성은 특정의 지배체제가 어느 경우에서나 불변의 속성으로서 유지하려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W. G. Runciman, *A Treatise on Soci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 86)

항상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어느 지배체제이거나 그 체제가 가장 중요하게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가치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북한 사회의 항상성

을 고려한다면 결국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사회의 체제적 향상성은 김일성 지배체제 그 자체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김일성의 세습적 권력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체제적 향상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체제적 향상성은 전체주의적 권력구조이다. 이는 다원주의적 경쟁성이나 개인중심주의적 사회로의 전환이나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차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 사회에서 체제적 향상성은 전투적 대결의식이다. 북한 사회에서 전투적 대결의식은 전체 주민을 일정한 사회구조에 의한 통합으로 응집시켜 그것에 의하여 기존 사회구조를 지속시키게 하는 요소이다.

넷째, 북한 사회의 향상성의 하나는 기존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교육적 주민동원 방식이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정보의 유입과 통제에 의한 철저한 제약 등은 국가와 지배세력에 의하여 선택된 내용을 언제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 순응하게 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 북한 사회에서의 체제적 향상성은 공산주의적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은 단순히 환상적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가 평등이라고 믿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북한 사회의 이러한 체제적 항상성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권력적 통제집단의 불변적 지속성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로서 강력한 전체주의적 봉치양식을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주민들에게 항상 강한 전투적 경쟁의식을 심화시켜 다른 사회나 국가와의 경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그 자체가 사회를 보다 더 강력한 전체주의적 구조로 확고화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공산주의적 평등의 실현이라고 믿게하고 그것이 당장 이룩될 수 있을 것 처럼 논의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항상성을 위의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그것에 수반된 변용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변용성은 이미 앞서서도 말했지만 항상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적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어느 특정체제의 항상성이 무엇이고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수단적 가능성 그것이 바로 변용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변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기본적 변용성은 이데

올로기이다.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는 단지 김일성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북한 사회의 발전이나 일정한 사회지향의 기준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지배체제 자체가 사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용되는 이데올로기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변용시키고 수용하는 강한 대응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북한에서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변용되었는가를 고찰하게 되면 그것이 단지 북한 사회의 기존적 지배체제 유지에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최초로 일종의 외삽적 이데올로기의 수용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소련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수용이 점차 일정한 시기가 경과하고 난 뒤 그것을 북한 사회에 적실성이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로 전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이 경우 주체사상은 그것이 초기의 형성과정에서는 마치 사회주의를 북한 사회에 적실성이 있는 이념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주의의 자기화의 시도로 보였다. 그러나 점차 주체사상은 오히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능가하고 그것이 구체화 시키지 못한 미래사회적 성격을 보다 철저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다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사회주의와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사상이며 이는 인간주의적이고 나아가 민족적 지향을 대변하고 있다는 논지가 그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자기 구속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변용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적 변용성의 하나는 정책 그 자체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성격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정책은 비록 이미 앞에서 실시된 다른 정책과 일정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난다 해도 그러한 변동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가령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과 같은 것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외교정책에서 어느 특정의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지향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그 당장에 유리하고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릴 수 있다면 그 정책으로 선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발정책만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위기에 몰렸다가거나 실적이 약하다고 인식된다면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경직된 사회구조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선회 가능성이

나 정책적 변화에서는 대단히 유연한 대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제, 북한 사회에서의 변용성은 '적과 아방의 관계' 설정이 항상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적과 아방의 관계 설정이 분명하며 그러한 설정에 의한 주민 동원의 강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북한에서는 대단히 판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적과 아방의 관계'에서 북한에서는 대외적으로 영원한 적대국가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대국가도 북한의 대외적 관계나 유지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다. 또한 어제의 우방이라도 언제든지 대결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변화의 양상을 주민들에 전달하고 수용케 하는 방법은 바로 주민대상의 위로부터의 강력한 교육적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체제의 변용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북한 사회는 경직적인 폐쇄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존과 지속의 가능성이 다른 체제보다 비교적 높은 이유는 일종의 김일성 중심의 신정체제로서의 전체주의적 사회구조라는 특징적 항상성을 제외한다면 그밖의 성격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변용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적 지속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3. 지배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내용과 전개

북한 사회에서 이미 앞에서 말한 항상성으로는 김일성 지배체제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한 항상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변용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지배이념적 성격으로서의 주체사상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항상성의 일면도 가지고 있으며 변용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주체사상은 항상성을 지향하기 위한 변용적 내용의 자기수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지배체제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특히 그것이 변화할 수 있는 미래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주체사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이념이자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사실상 이념화한 체계적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먼저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성격의 일치성을 유물사관과 연관시켜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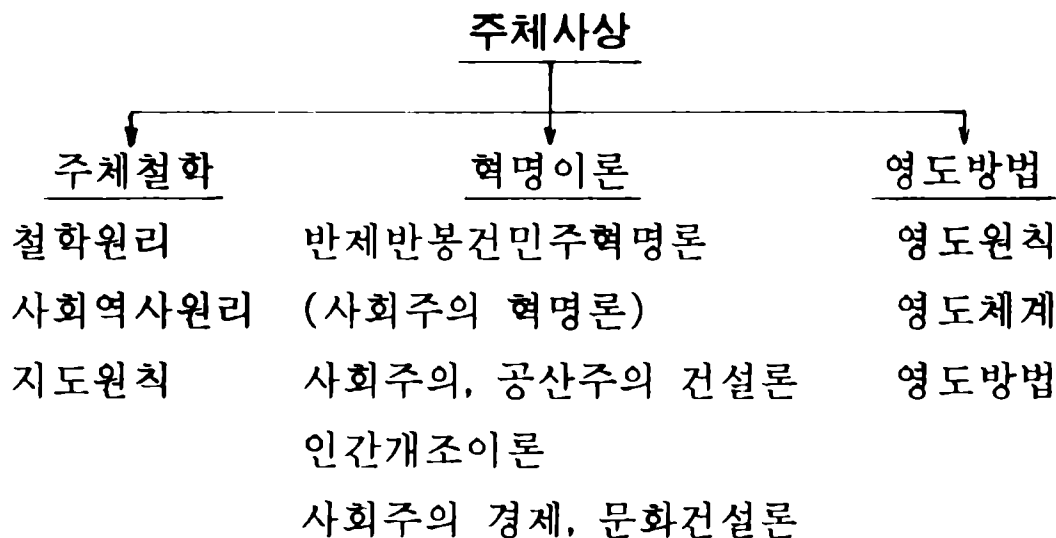
1) 주체사상의 유물사관적 기반

주체사상은 북한의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독창성이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이념을 적절히 짜깁기 하면서 그 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정책적 성격이 함유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완결된 사상체계로 인식하기 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장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또한 북한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수 있다. (강혜련, “주체사상의 역사발전론에 대한 비판” 연구노트, 1991, p. 2.)

주체사상의 구성



위의 도식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주체사상은 철학적 성격, 정치경제학적 성격, 그리고 정치동원적 전략의 면으

로 구성된 일종의 복합적 논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주체사상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나아가 그것에 의하여 이념과 현실분석, 미래지향의 가치 까지도 설정하려는 종합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주체사상을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논리적 체계는 물론이고 성격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주체사상을 주로 이념적인 차원에서 먼저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체사상의 구체적인 이념적 성격과 사회분석의 중요한 기준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원용됨에 있어서 한국의 통일문제 등 미래지향의 내용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성격, 다시말하면 그것의 이념적 의미로서의 정치사상적 특징을 논의하기로 한다.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내용의 종합물이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통성을 담고 있고 다른 또 하나는 제3세계의 민족운동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사상체계이다. 주체사상이 사회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은 주체사상 그 자체속에 밝히고 있는데 이를 여

기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5권, :533)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그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발전을 인식하는 논리나 기존사회구조의 특징 그리고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을 논의하는 내용 등은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가령 주체사상이 의미하고 있는 주체의 대상이 바로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일정한 역사적 계기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발전의 인식은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관에 의한 사회변동론을 들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의 역사적 전개에서는 오직 물질토대로서의 경제적 기반에 의하여 그것이 조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로서의 계급의 갈등과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히 유물사관의 일반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 위에 주체사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점에 대한 주체사상 자체의 인식을 찾아 보기로 하자.

“유물사관은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에

서 사회적 진보의 표징과 사회발전단계의 중요한 척도로 보았다. 유물사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류사회는 원시공동체적인 사회경제구성태, 노예소유자적인 사회경제구성태, 봉건적인 사회경제구성태, 자본주의적 사회경제구성태를 거치면서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경제구성태에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사회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합법칙적인 발전과정으로 보는 가장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하였다.”(위대한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1985:180)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주체사상에서는, 역사의 발전과정에 인민의 위치에 대한 성격을 논의하고 있다. 즉 인민대중의 역할과 지위는 사회의 각 발전 단계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민대중의 역할의 높이와 그것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인식은 바로 역사발전을 유물사관으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역사의 발전과정은 그속에 살고 있는 인민대중의 위치를 형성하였고 인민대중의 주체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역사로 전개되었다고 인식한다. 결국 주체사상의 이러한 인식은 역사는 바로 인민대중이 주체로 나아가고 있고 현실적인 역사의 단계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인식은 경제적 토대에 의하여 조성되

있던 계급관계에서 피지배계급에 속하였던 노예, 농민, 노동자를 일정한 범주, 즉 인민대중이라는 특정화로 설정하여 이들이 자각된 의식에 의하여 주체적 활동을 추구하고 그러한 추구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제가 간단없이 되풀이 되었음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논의는 주체사상이라고 말 할 정도로 지금의 인민대중이 주체적 의식이나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는 관념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문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하는데 따라 원시적인 평등이 보장되었던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인민대중이 사회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적대적 계급사회들을 거쳐 인민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참담게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합법칙적 단계를 경과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속성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면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그 규제방식이 발전한다. 그리하여 사회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위책 : 181)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논의하고 있었던 사회계급관계를 단지 피지배계급에 한정시켜 그들의 의

식의 고양과 주체적 역할이 보장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결국 유물사관의 넓은 범주에 해당되는, 기껏해야 그것 중에서 인민대중의 주체적 역할을 논의하는 관념적 주장을 펴고 있을 뿐이다. 흔히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 설명되고 있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도 이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가령 그가 말하고 있는 인민대중은 누구인가를 밝혀보면 그것이 피지배계급의 인사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민대중은 고대노예, 중세 농노, 근대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즉 피지배계급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 나뉘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단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역사적 현실성을 가져다 주었던 경제적 사회구조의 메카니즘의 분석에 치중하였음에 비추어 이들의 주장은 그것을 상부구조적 인식, 다시말하면 계급투쟁적 성격보다는 완성된 존재나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을 논의함으로써 당면의 역사적 위치와 임무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체사상은, 유물사관을 이제까지는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인민의 주체적 성격을 무시하고 계급관계나 생산력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정작 유물사관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하여 사회혁명을 일으켜

야 할 주도적 존재로서의 인민대중이 역사적 사명을 이해할 수 없게 하였다고 지적할 정도로 일방적인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주장으로 다음의 글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은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얼마만큼 높아지고 변화 발전했는가 하는데 의하여 사회발전단계가 본질적으로 구별되게 된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 단계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발전단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혁신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힘있는 이론 실천적 무기를 마련하였다.”(위책 :198)

2) 주체사상의 역사적 전통성

주체사상은 단순히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는 논리로만 인식될 수 없다. 그것에는 이러한 성격 이외에도 일정한 역사적 전통을 수용하고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최소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적 요소로는 이미 앞에서 말한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관 이외에 역사적 전통성, 그것은 주로 한국의 전통적 사상요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

에 대한 발전적 해석으로서 또는 그것에 의한 새로운 가능성의 해석에 치중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여기서는 주로 주체사상이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통성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주체사상에서 함유하고 있는 역사적 전통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해방적 개혁사상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평등적 가치로 설정하고 사회를 왜곡시키고 약탈과 불평등의 사회로 만들었던 지배와 자본주의적 계급사회에 연유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해방에의 기대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지배계급의 약탈과 억압하에 굴종의 상황을 수용하여야 했던 일반대중은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일종의 환상적 미래관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해방의 기대감이다. 해방은 오늘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그 속에 담고 있었다.

1. 민중적 가치관념으로서의 해방은 가난한 민중이 부유한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투쟁의 결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리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초자연

적 절대성이라고 믿었다.

2. 해방의 논리에서는 영원한 복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상향 그 자체로 이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비로소 인간다움의 자기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믿고 있었다.
3. 해방은 완전평등의 사회로 그러한 평등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해방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남이라고 믿었다.
4. 해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되기 보다는 초자연적 힘, 절대자의 권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적 사상에서 해방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평등을 해방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점에서 주체사상은 해방의 사상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를 전통적 민중의 심정적 일치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해방의 감정을 평등화에 접속시킴과 동시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상적 맥락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민중적 욕구는 지배자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임에 비추어 특히 그러한 욕구가 다른 사회에 비하여 강하게 작용해 온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그 일단을 주체사상이 접목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인민대중을 피착취적 억압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주체화는 바로 해방의 그 자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오래전 부터 주장되고 환상적 미래지향의 인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민중적 전통의 정서를 주체사상에 결부시킬수 있었다. 바로 이점에서 주체사상은 유물사관의 영향에 비하여 더 큰 영향력과 정서적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전통사회는 시기적으로 최초 국가적 성격이 형성되었던 고대에서는, 다른 사회의 경우와는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다른 사회의 국가는 그 성격이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와 약탈의 구조화가 기본적인 성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고대국가는 지배,피지배적 불평등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의 점유에서도 가족체적 공동사회의 성격을 주조로 하는 일종의 공유·공동체의 속성이 강했다. 이러한 성격은 평등이 사회적 특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단지 사회의 발전에 따른 가치의 집중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실제로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였다. 이러한 사회의 평등적 성격이 점차 불평등 구조로 전환함에는 두가지의 역사적 계기성과 연관을 맺음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세국주의적 세력의 침탈에 의한 식민화를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유입이었다. 시기적으로 이를 지적하면 전자의 경우는 통일신라 이후부터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자본주

의 유입은 조선조 중·후반기 이후라 할 수 있다. 식민주의적 성격에 의해서 가치배분의 균등성과 가치점유의 대등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권력구조와 연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평등의 사회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 중·후기에 와서는 자본주의의 유입에 따라 더 한층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등적 차등사회의 성격이 주조로 되었지만, 민족적 정서나 감정적 기반은 여전히 이전의 평등적 공동체 의식에의 귀의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요소는 그뒤 불교와 같은 종교에 의해서 내세적 평등추구로 퇴행되어 현실적 평등에의 갈망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 즉 평등지향의식은 실제로 국민적 정서의 한 측면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근대적 비합리성의 근간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가지게 되었다.

3) 주체사상에서 제3세계적 반제혁명론의 수용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체사상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새롭게 개인의 주체적 역할과 지위의 확보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유물사관의 상부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경우 주체사상은 한국의 전통적 민중의식의 한 요소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범세계적인 현실성, 다시말

하면 제3세계적 민중혁명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체사상은 북한을 단순히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비서구 사회로 설정하기 보다는 제국주의에 의하여 오랜 식민지 경험을 가진 제3세계 국가로서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서 투쟁을 전개하는 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그 내용면에서 강력한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그것을 통한 반제 혁명전선의 세계적 구축에 주체사상이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제 혁명적 인식은 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첫째 반자본주의적 계급혁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고 둘째로 주체사상의 제3세계적 의미는 반서구주의적 영미체제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기본 요소로 삼고 있다. 이 두가지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줄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의 문제점, 즉 그것이 제국주의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에 의하여 비서구 제3세계가 극심한 식민주의적 종속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정을 그들의 주장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는 척하지만 실제에 있

어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또 다시 올라미를 들씌우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넓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한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산 자본주의 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은 막아낼 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오늘은 아직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듯이 보이는 미제국주의도 멀지않아 멸망하고야 말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260-1)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지향하고 있는 반제운동의 핵심적 내용은 반미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이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투쟁이 가장 절실한 반제운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점에서 주체사상은 그 기본적 성격을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국제사회에서 제약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붕괴를 우선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반제주의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첫째, 반제운동의 기본적 속성을 사적유물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반제운동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치루었던 반인간적인 죄과의 가장 격심한 모습이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세째, 반제식민운동은 자본주의의 침탈로 피해를 입었던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의 현실적인 투쟁의 민족적 목표로서 이를 위한 제3세계 국가간의 연대와 협조는 필연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네째, 반제운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반미운동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민족적 지향이며 제3세계의 국가들이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세계적 평화를 유물론적 차원에서 승리로 귀일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반제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미적 투쟁의 강화에 있으며 제국주의 세력의 핵심영역인 미국의 고립과 멸망은 자연히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순차적인 멸망을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식민주의를 종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반제 혁명노선의 성격은 구체적인 전략에서는 다음의 3가지 성격을 추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3세계 인민의 주체적인 의식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양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

적 투쟁의지를 고양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고양의 전략은 자연히 주체사상에 의한 철저한 학습과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의 전략으로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반미 반제 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투쟁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북한이 외교관계에서 추구해온 전략의 하나인데 그들의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강고한 협조체제의 추구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반미 군사적 투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미국의 식민지적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 직접 민중의 봉기에 의하여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쿠바와 베트남을 들고 있다. 이들 국가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반제 투쟁을 반미 투쟁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논리화하며 실제로 북한의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북한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주체사상은 하나의 완결된 사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새롭게 부가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주체사상은 독창적인 사상이라기 보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유물론을 변안한 사상체계로 그것에 의한 북한 사회의 현실적 통치내용을 담고 있다.
3. 주체사상은 그 수용을 고려하여 한국의 전통적 민중의식에 침잠되고 있었던 환상적 해방의식을 논리화하여 이를 마치 실천적 가능성으로 대입시키고 있다.
4. 주체사상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주체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로 투쟁적 혁명성을 고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러한 혁명적 고양은 주로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자본주의 멸망에 대한 사회주의적 지향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주체사상은 완벽한 사상체계이거나 하나의 일치성을 가진 논리적 구체화로 인식하기 보다는 북한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영향력을 지속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리이며 이것에 의하여 김일성의 통치구조의 한 요소로 정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바로 이점에서 어느 한 면에서 논의될 수 있거나 또는 어느 한 내용만을 구체화하여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북한사회의 통치구조라는 차원에서 인식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

서 그것은 지배체제의 논리로서의 성격, 즉 주민통제를 위한 의식화의 성격이며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변안임과 동시에 손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북한식의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다.

4. 김일성 지배체제의 통치양식

김일성 지배체제는 일견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면 몇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김일성 지배체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체제나 전체주의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김일성 지배체제의 통치양식을 그 성격적인 면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김일성 지배체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족체적 전제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도 마르크스주의도 모두 이러한 성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여기서는 먼저 김일성 지배체제의 일반적 통치양식을 논의하기로 한다.

1) 가족체 전제주의체제

김일성 지배체제의 일반적인 성격과 그 특수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일성 지배체제의 권력구조를 개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점에 대하여 여기서는 먼저 북한 통치구조의 일반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체제가 그러하듯이 북한에서의 지배구

조도 공산당 지배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기관 그 자체를 지배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예외가 아니며 어느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철저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서 다음과 같은 조선로동당 규약을 들 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참고)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기본적 지향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존재에 의하여 비로소 그 의미가 규정되고 있는데 정부나 국가는 단지 이러한 북한의 로동당의 지배체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로동당은 그 조직상 다음과 같은 원칙과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당중앙 중심의

‘민주주의’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각종의 기관을 조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당의 조직 원칙이 당원에 대한 철의 규칙을 부과함과 동시에 당의 결정은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북한 공산당의 경우도 예외를 찾을 수 없다. 가령 다음과 같은 북한 공산당의 규정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당 조직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 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11조 3항)라고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당의 중앙이 사실상 전권을 다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동당의 명목상의 최고 지도기관은 당대회로 되어 있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5년에 1회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로동당의 실제적인 권력의 장악기관은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로동당 상무위원회는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설치 규정한 것으로 이 당시에는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등이었다. 실제로 상무위원회가 북한에서는 최고의 실권자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이에 이들의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3권 1호. 1991년 봄호, p. 25)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상황

1980. 10

6차 당대회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1981. 10

사로청 7차대회 …김일성, 김정일, 김일, 오진우, 이종욱

1983. 9

9. 9절 행사 ……김일성, 김정일, 김일, 오진우

1984. 3

김일 사망후 현재…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북한로동당의 중요한 기구중의 하나로서 지적된 정치국

의 경우는 현재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이종욱, 박성철, 서철, 연형묵, 김영남, 최광, 계응태, 한성룡, 전병호, 강성산, 서운석으로 되어있다.

그밖에 비서국 등의 기구가 중요하지만 이들 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사실상 통치의 핵심기구인 로동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이들은 정치국원과 비서국의 직책까지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점에 북한 통치구조의 성격으로 권력기관의 핵심 정상부에서는 비록 그 기관이 여럿으로 포진되어있다 해도 실제 직책을 맡은 핵심 인사들은 몇몇 특정 인사의 중복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로동당이 북한 전역의 중요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정무원으로 일종의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무원에는 총리, 부총리 등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평양시, 직할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라는 일종의 로동당의 결정을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공포하기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북한에서는 강력한 권력이 특정 소수인사에 의한 집

- 약적 통제화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2. 북한의 통치구조는 일종의 가족체적 전체주의를 특징적인 성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3. 북한의 통치구조는 최정점과 그를 보좌하는 고위 정치권력 점유자간의 사적 유대성에 의한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간급 이하의 단위에서는 주체사상과 공산당의 철저한 감시기능에 의하여 기능적 행사가 보장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4. 북한의 지배체제는 강력한 유기적 총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속감은 전적으로 일정한 조직적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5. 특별히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징적 사실은 그것이 가족체적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저항이나 중간 엘리트층의 이탈과 같은 현상이 견제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통치체제는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것 처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일종의 가족체적 전체주의로 인식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가족체 전체주의는 중세적인 정치구조의 한 양식으로 권력의 사유화의 성격을 전제로하는 특이한 전체주의 통치구조를

의미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체 전체주의는 그 성격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를 마치 숙명적 가족관계로 인식할 정도로 그 체제에 맹목
적인 수용성을 보여주게 된다. 특정의 최고 통치권자를 마
치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는 마치 아버지에 대한 저항
으로 인식될 정도로 철저한 복종의식이 유일한 미덕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가족체 전체주의는 일반 민중들의 삶
의 현실을 최고 통치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마치 시혜적인
은총으로 여길 정도로 최고 통치자에 대한 감사로 일관한
다. 특히 최고 통치자에 대한 무오류적 카리스마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종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특정의 사회구조가 가족체
적 전체주의로 지향하게 되면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
은 특징이 조성되고 만다. 그것은 먼저 사회구조의 강력한
통합성이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흔히 주장되고 있는 사회
주의 전체주의체제의 붕괴와 같은 현상이 이러한 상황에서
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다. 둘째로 가족체 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불평등이나 사
회적 갈등이 비교적 약하고 그러한 갈등이 조성된다 해도

그것에 임하는 주민들의 태도에서 급진적 혁명성을 보여주
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극소화하려는 현실수
용의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세째, 가족체 전제주의 체제하
에서는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수용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을 보여주게 되지만 만일 최고 통치자
에 의한 그러한 변화의 수용이 선택된다면 일반 주민들의
맹목적인 추종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통치체제
는 가족체적 전제주의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적 전제주의와는 구분된다.

2) 유기체적 통치양식

북한의 통치체제를 가족체 전제주의로 규정할 경우 그것
에 따르는 통치양식이 설정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은 전형적인 병영국가적 통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서 북한 사회의 통치구조의 일단을 살펴보면서 그러
한 통치양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
보기로 한다.

병영국가적 통치양식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일종의 군사
국가적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군대와 같이
나라 전체가 일종의 계급적 위계 체계를 보여주며 그러한
계급구조에 의하여 조성된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충실한
종속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병

영국가에서 통치양식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적 정의성이 중시된다. 이러한 정의성은 오직 감정적 정서를 통합하여 그것에 의한 군중의식적 결집의식을 고양시켜 그것에 의하여 조성되는 통합성과 기능적 기여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병영국가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서적 감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극단적으로 자기희생 의식과 고차원의 헌신감 그리고 강력한 집합체적 의지가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병영국가의 통치구조가 다른 전제주의 사회의 통제양식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기체적 통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통치수단간의 자율성과 위계적 체계성이 일사불란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생물체의 유기체와 같은 효과의 극도화를 구현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고도의 조직사회나 감시감독이 가능한 철저한 통제사회에서만 이룩될 수 있는 성격이기도하다. 일단 유기체적 통치양식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는 자발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것은 소멸되고 단지 위로부터의 명령에 추종하는 일종의 수동적 존재로 변모되고 만다.

이러한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것에 임하는 주민들의 태도에서 급진적 혁명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극소화하려는 현실수용의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세제, 가족체 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수용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을 보여주게 되지만 만일 최고 통치자에 의한 그러한 변화의 수용이 선택된다면 일반 주민들의 맹목적인 추종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통치체제는 가족체적 전체주의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와는 구분된다.

2) 유기체적 통치양식

북한의 통치체제를 가족체 전체주의로 규정할 경우 그것에 따르는 통치양식이 설정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은 전형적인 병영국가적 통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서 북한 사회의 통치구조의 일단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통치양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 보기로 한다.

병영국가적 통치양식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일종의 군사국가적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군대와 같이 나라 전체가 일종의 계급적 위계 체계를 보여주며 그러한 계급구조에 의하여 조성된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충실한 종속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병

영국가에서 통치양식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적 정의성이 중시된다. 이러한 정의성은 오직 감정적 정서를 통합하여 그것에 의한 균중의식적 결집의식을 고양시켜 그것에 의하여 조성되는 통합성과 기능적 기여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병영국가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서적 감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극단적으로 자기희생 의식과 고차원의 헌신감 그리고 강력한 집합체적 의지가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병영국가의 통치구조가 다른 전제주의 사회의 통제양식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기체적 통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통치수단간의 자율성과 위계적 체계성이 일사불란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생물체의 유기체와 같은 효과의 극도화를 구현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고도의 조직사회나 감시감독이 가능한 철저한 통제사회에서만 이룩될 수 있는 성격이기도하다. 일단 유기체적 통치양식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는 자발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것은 소멸되고 단지 위로부터의 명령에 추종하는 일종의 수동적 존재로 변모되고 만다.

이러한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

첫째, 철저한 정보망의 전국적 구축이다. 정보망은 상호 견제 감시와 함께 특정의 소수인사의 수중에 정보를 독점하게 하고 이 정보에 의하여 통치의 핵심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체민중의 의사나 합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정보를 근거로 하는 특정 지도자에 의한 정치가 자행되기 때문에 강력한 구심력과 함께 철저한 압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분절적 조직화를 지역과 집단과 영역에 걸쳐서 광범하고도 치밀하게 기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절적 조직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지역의 경우 한 지역이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과 일방적인 관계나 연대성을 맺을 수 없게 된다. 단지 한 지역은 오직 수직적으로만 다른 지역과 연계를 맺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고립적이고 대단히 분산적이기 때문에 촌락단위의 자활적인 성격이 강요되고 위로부터의 통제만이 전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세째, 이러한 유기체적 통치양식은 철저한 훈련에 의한 의식화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사이의 결속과 함께 한 사회체제의 유지와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게 된다. 북한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교육적 기대치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서 교육은 바로 그 사회체제의 지속과 결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의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교육은 단지 주민의 의식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유지에 요구되는 이른바 사회주의 인간형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적 내용은 모범을 보여주며 이를 장려하는 홍보적 성격과 함께 징벌을 과시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집단적 결속에 의하여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도 함께 동원하게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북한에서 교육은 단지 개인의 가치창조와 자기 함양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서의 전체주의적 집합체의 한 요소로 기능하게 하는데 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 북한과 같은 유기체적 통치양식을 강구하는 사회에서는 강한 처벌과 감시에 의한 이른바 사회적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징벌을 일상화함으로써 주민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군부와 정보기관 사법기관 모두가 정치권력 소유자에 대한 충성기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권력옹호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3) 교차적 사회구조에 의한 견제양식

북한 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교차적 사회구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북한 사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를 단지 한국의 사회와 같은 다원적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하여 여기서는 먼저 교차적 사회구조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차적 사회구조란, 전체사회가 중요한 몇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마치 각 영역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상충부에서는 교차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차적 사회구조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사회 각 영역 사이에 수평적이고 연대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그것이 다시 전체적인 체계성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로 유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영역이 그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최하층의 단계에서 최상층의 단계에 이르는 특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예를 들면 북한에서 농업 영역은 그만의 독자적인 전국적 단일체제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한 성격의 영역은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수산업이나 공업과의 관계는 하층이나 중간층의 단계에서는 별다른 연계성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에서는 마치 그것만이 전부로 인식되고 가장 강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영역의 최정상에서는 다른 영역의 최정상을 차지하는 인사들에 의하여 역시 지배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통치의 차원에서는 지배의 효과성과 단일적 통제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의 통치양식에서 이러한 교차적 사회구조의 성격은 사실상 북한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그것은 먼저 군사영역에서의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고 경제영역과 문화의식 영역에서의 특수성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군사영역은 가장 대표적인 교차적 사회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사회에서 군사영역은 북한내의 또 다른 북한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독자성과 특수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군사영역만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교육문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영역의 성격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교육이나 이념에 대한 논리나 실천이 위로부터 하달된 명령에 의하여 그대로 추종되고 집행될 뿐이다.

이처럼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차적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 북한 사회의 교차적 사회구조는 그 사회를 단절적이

고 분절적인 사회로 존립하게 함으로써 각 영역과 분절된 구조내의 독립적 분산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영역과의 경쟁성에 입각하여 사회적 견제성을 보여 줄 수 있게 한다.

2.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차적인 성격은 몇몇 특정의 사회영역 예를들면 군사영역이나 문화의식부분, 그리고 국가관료의 영역에서 각기 독자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각 영역은 마치 북한 내의 조그만 독자적 영역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3. 교차적 사회구조에서 각 영역은 하층과 중간 단계에서는 다른 영역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되지만 최고의 단계에서는 최고 통치집단에 의하여 중요한 결정직위가 점유되기 때문에 통치자의 차원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권력집중의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오늘의 북한 사회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말한 가족체적 전체주의 체제라는 성격과 유기체적 통치양식 그리고 교차적 사회구조의 성격적 특징으로 인하여 김일성 김정일의 특정적 개인통치가 가능하고 이것이 비교적 강압적인 성격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5. 세계체제의 변혁과 북한체제의 대응성

이미 앞에서 북한 사회주의 지배체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과 변용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그것의 지배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과 지배체제의 핵심적 성격으로서의 권력구조와 통치양식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가 현실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세계체제의 재편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대응적 전략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지면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인 성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적 대안성을 설정하게 된다.

1)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1980년대 후반기 부터 동구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모는 불과 10년전만 해도 감히 추단할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사회주의는 동구에서 제2차대전 이후 일종의 패권주의적 지배논리로서 굳어져 있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치가 스탈린주의적 통치양식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주의적 중산층 계급이나 부르조아적 계층은 사실상 공산주의자들로 부터 숙청의 가혹한 시련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회주의 체제는 마치 절대적인 사회변

혁의 가능성을 가진 정치이념으로 굳림하게 되었고 공산주의적 소비에트적 지배체제는 전체사회를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직사회로 변모시켰다.

당시 동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를 일종의 이상적인 정치이념으로 인식했으며 스탈린주의적 개발독재체제가 급속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장 적실성이 있는 정치제도라고 여기게 되었다. 대부분이 소련권에서 망명했다 귀국한 동구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체제를 모방하여 그리고 소련의 지지하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고 군부와 경찰정보기관을 통하여 부르조아적 속성을 반혁명적 인사로 규정하여 철저히 숙청하였다.

이러한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 정치이념으로서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요소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사회의 발전과 변혁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2. 사회주의 사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산당의 중요한 핵심적 전위기능을 강조하였고 공산당의 주도하에 사회변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변혁의 중요한 성격은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철폐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폐지였다.

3. 유일정당체제적인 공산당의 집권하에 일반 국민들의 사상적 통제와 생활에서의 구속을 통하여 급속한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성격은 소련의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할 정도였고 자체적인 민족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은 전혀 논의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에 놓여 있었다.
4. 사유재산제도의 철폐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평간화시킬 수 있었지만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고 그 결과 일반시민들의 욕구를 감소시키는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의 감소는 자연히 정치적 지향성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그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정치적 감각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공산당에 대한 의식과 평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5. 한편 동구사회에서는 종교적 전통이 강하게 침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아무리 공산당에 의한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종교의 영향력은 차단할 수 없었고 이러한 성격은 정치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유물론적 인식과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유심론적 사고 사이에 접합할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 주었다.
6. 이러한 동구사회의 상황은 초기의 신진 자본주의국가

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논의되었던 시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소련과 공산주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변모되었고 특히 소련의 지나친 내정간섭과 스탈린주의적 통제양식은 동구사회의 주민들에게 일종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심어 주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들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후반기 부터였다. 동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은 먼저 같은 공산당내의 진보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동구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인격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억압에 기여하는 반인간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의 얼굴을한 사회주의로의 주장이 공산당내의 진보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초기에는 공산당의 집권세력인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무시되었다. 보수주의적 집권세력은 자연히 이들 진보파에 대한 강력한 숙청 제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과 변혁의 사회적 기반을 일반 노동자에 파급시키게 되었다.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진보적 주장은 사회주의 조직사회의 경직적 사회구조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의식으로 지향될 수 있었다. 공산당내의 진보적 인사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초기의 개혁적 사상이나 주장이 점차 일반 노동자 농민층에 지지 기반을 가지게 되자 이들 노동자와 농민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대변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체가 바로 자유노동조합이었다. 자유노동조합의 활동은 공산당의 지령과 무관하게 조직에서의 자유로운 노동자의 가입과 함께 활동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임의단체에 불과하였지만 곧이어 이들 자유노동조합의 조직체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 힘이 강화되었다. 이들은 노동현장에서의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노동자의 생활조건 향상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민주화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유노조와 공산당내 진보파의 주장에 대하여 공산당의 집권세력은 소련의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격심한 억압과 통제를 가할 수 있었고 이를 금지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동서공존의 해빙분위기에 의하여 소련의 동구 사회주의에 대한 관여는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는 자연히 동구사회를 공산주의자들과 일반 노동자와 농민의 진보적 사회개혁 주장 사이의 갈등으로 몰고 갔고 그러한 갈등의 중요한 조정세력은 교회가 맡게 되었다. 동구 사회에서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반공적이었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민주화 세력

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구에서의 교회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는 중국적으로 공산당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공격이었다.

최초에는 부분적 타협이 이룩될 수 있었지만 이 정도의 타협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일반 민중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노조를 중심으로한 연대에 의하여 공산당 타도로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거대한 민중적 힘은 소련의 지원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에서는 공산당 독자의 힘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었고 이는 자연히 공산당의 패배로 지향할 수 밖에 없었다.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공산당으로부터 차지하게 된 시민조직체들은, 비록 그들중에 이전의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제 공산주의는 사실상 종식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이탈되어 민주화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변모할 수 밖에 없었다.

2)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과 소련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소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소련이 지난 1917년의 혁명이래 그들이 주장하였던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은 결국 참담한 실패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기 위

하여 여기에서는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의 배후와 그 성격을 살펴보면서 소련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짚어 보기로 한다.

소련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80년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제1기—노농 적군 중심의 혁명기(1917—1923)

제2기—스탈린의 신경제정책기(1924—1933)

제3기—전시총동원및 사회주의 선진경제기(1935—1945)

제4기—전후 냉전체제와 소련패권주의 확정기(1946—1959)

제5기—동서 공존체제의 지향기(1960—1978)

제6기—소련체제 내적 구조변혁 모색기(1979—1983)

제7기—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 표명기(1984—1988)

제8기—소연방 해체기(1989—)

위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에서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즉 그것은 먼저 유물사관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의 미르(Mir)공동체적 전통과 아시아적 전제체제의 정치구조를 결합한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내용 구성

마르크스주의—유물사관—변증법적 역사발전,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사회
의 실현

러시아의 전통—미르 공동체—집단농장등 생산 소비의

공유체제형성 아시아의 전제체제—강력한
군사독재체제의 수립

레닌의 선동성—볼셰비키의 당 영도와 지도자 신화의

현실성, 엄격한 정보 경찰통치구조화

이러한 소련 사회의 성격은 최소한 신경제정책이 실시되었던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자본주의의 경제발전론에 비하여 더 한층 의미있고 실효성이 있는 경제발전 모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사회주의 통제경제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진영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 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서 소유욕망과 욕구의 과도한 증대는 필연적으로 그것에 부응할수 있는 생산력의 증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요청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유개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열의의 극소화 현

상은 그러한 성장을 실제로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체계는 급속한 경제적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한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더 한층 격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1.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의한 과도한 국방비의 지출과 아프카니스탄의 군사파견의 경제적 부담의 과중성을 들 수 있다.
2. 재정상의 합리적 관리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는데 지출우선의 사회주의적 재정학의 성격은 현실성을 결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3. 일반적으로 각 집단별 작업장별 임금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조치가 실제로 다른 작업장과 같은 급여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바로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4. 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로의욕의 저하는 자기 소유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개념을 생산에 그대로 이어질 수 없게 하였다.
5. 마지막으로 현대과학의 발전과 인공위성등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된 경제와 생활패턴이 소련의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자극시키게 되었다.

6.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연방에서 점차 민족주의적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강력한 중앙 권력구조의 중심점이 미약한 경우에는 일층 더 심하게 민족분열적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성격은 전반적으로 당시 권력을 장악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이 오히려 소련사회를 해체시키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개방과 개혁의 구체적인 복안과 정책 그리고 실천적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결국 소련 사회를 붕괴시키는 기본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 걸프전 이후의 신세계 체제의 구축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걸프전을 계기로 하여 199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2천년대를 예비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이전의 국제관계에서 논의되어왔던 중요한 성격, 즉 세력균형 개념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서로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인 국가나 집단들 간의 균형관계의 유지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서 일종의 파스-로마나 체제(Pax-Romana System)의 성격과 집단안보 개념이 혼용된 성격을 조성하

게 되었다.

당시 걸프전쟁은 미국에 의하여 주도된 연합군이 참전하고 실제적인 군사작전은 전적으로 전자 병기로 인한 일종의 별들의 전쟁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최고의 정밀함과 과학적인 병기의 사용 그리고 전자장비에 의한 대량 살상의 무기화에 의한 전투는 이전의 보병대 위주의 전쟁으로 부터 포병대 위주의 전쟁으로 변모시키게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오늘의 전쟁이 곧 전자무기에 의한 과학전쟁임을 실증하였다.

걸프 전쟁의 결과 미국의 전쟁 승리는 이전의 베트남전쟁에서의 패전이라는 상처를 씻을 수 있었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경찰국가로서의 이전의 위치를 더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의 동맹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 조차도 미국의 주도적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국제질서는 미국주도의 신질서로 완전히 재편되게 되었다. 미국은 그들의 이러한 우월한 위치를 보다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인정을 직접 간접으로 인정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성격의 하나로 일본에 대한 걸프전 지원경비의 부담을 들 수 있고 유럽에서의 EC통합은 미국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잠재적인 적대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던 소련에 대한 전면적 재편구조화를 위한 직간접 영향력을 행

사하기도 하였다.

결프 전쟁이후의 세계체제는 이전과 완전히 구분되는 이른바 신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체제는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이전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강화였다. 이제는 웬만한 국지전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조직되어 마치 이전 중세시대의 십자군의 원정과도 같이 그러한 지역분쟁을 억압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성격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다시말하면 결프 전쟁은 이처럼 미국주도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재편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공존적 관계에 있었던 수많은 국가들을 일정한 수직적 위계구도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영향력은 소련에 의한 사실상의 견제가 무너졌으며 중공과는 오랜 화해관계로 인하여 일종의 협조적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헤게모니 장악의 최초의 거대 국가로 군림하게 되었다.

4) 국제관계의 상황변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국제관계에서 신체제의 형성은 실제로 북한에게는 가장

심각한 변혁의 계기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새롭게 변모된 신체제의 성격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북한은 변모된 신체제의 성격에 의하여 가장 강력한 지원국가였던 소연방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실상 소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견국가임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에 놓여 있고 이념적으로는 동지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중요한 기둥이었다.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소련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 유럽 선진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동구의 몰락은 북한으로 하여금 동구를 더 이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수용 통로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서방과 우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였다.

3. 북한은 걸프 전쟁에서 최선의 전쟁은 전자과학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단지 사상전이나 이전의 전투행위로서는 현대전에 적실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걸프 전쟁이후 북한은 군사력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변모된 상황을 인지하

게 되었다.

4. 전반적으로 국제관계는 이전의 동맹체제나 또는 베트남전쟁 시기의 상황과 다른 전쟁의 국제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냉전체제적 발상이나 그러한 국제적 고립주의로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위기감은 결국 스스로 변화된 상황을 변혁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되는 새로운 대응양식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점에서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정치적 이념의 새로운 변용, 국제관계에서의 평화지향성 강조, 북한 사회의 통치구조의 부분적 재개편, 대남통일전선논리의 변화, 경제와 정치의 분리적 운영, 주민 정치교육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 정치이념의 변용

북한은 최근의 국제적 신체제의 대두에 즈음하여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응성을 신속하게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두가지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북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동구 사회주의의 모순이 결국은 파탄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의 운영과정에서는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가령 북한은 동구의 사회주의가 스탈린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직된 당관료의 현실적인 적응성을 결여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사회주의의 본질적 성격, 즉 인간주의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요소를 강조함과 동시에 스탈린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처음부터 제거하였다는 식으로 논리화하고 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는 북한 사회는 그들이 믿고 추진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이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성격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탈린주의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도 아닌 고전적인 사회주의의 사상을 북한의 사회와 전통에 맞게 새롭게 주체적으로 해석 발전시켰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자연히 북한사회를 동구나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추구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두가지 성격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주체사상에 못박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북한 사회는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북한의 독창적이고 창조적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2) 국제관계에서의 평화지향성

북한은 최근 그들이 주장하였던 전쟁지향적 대결적 투쟁 양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비록 그것이 북한 자체의 주민들에게는 대내적 통합을 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 국제관계에서는 더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점에서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투쟁적 대결논리의 완화는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지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지향은 주로 3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의 경우는 이제까지 북한이 적대적 관계로 설정한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 대해서도 외교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최근 한국의 북방정책에 의한 자극으로 북한의 남방 정책

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처럼 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그러한 감정을 고조화함으로써 북한의 대내적 통합에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본으로 부터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일본과의 협조관계가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추구로 몰고가고 있다.

북한의 평화지향의 다른 한가지 방법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북한의 평화지향성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존재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이전에도 각종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참여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시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연합에의 가입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은 상상할 수 없는 견정이었다. 즉 북한은 '두개의 조선'론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한계를 주장함으로써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이 점차 분명해지자 북한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국제관계에서의 평화지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장을 얻으려 하고 있

다.

북한의 평화지향성으로서의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방도는 대남한에 대한 변화된 전략과 태도의 표명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전까지만해도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부당국자와 회담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반체제나 사회주의 지향의 세력들에 대한 선동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중적 전략은 점차 한계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우선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일정한 형태의 평화공존적 태도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승리를 추구하는 불가피한 조처임을 남한내의 반체제적 사회주의 인사들에게 주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종전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국제관계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달라진 세계질서에서의 대응성을 높여가고 있다.

(3) 북한의 내적 사회구조의 부분적 재편 시도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즈음하여 그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감은 우선 그들 국내의 사회구조를 재편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재편은 주

로 다음 몇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1.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구조에서 권력구조에는 현실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분적인 사회구조의 재편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2. 사회구조의 분절적 구조화의 치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몇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외부의 개방된 조류와 접촉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부의 개방된 조류와 접촉한 경우도 그것이 그렇지 못한 영역으로 무한대로 침투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벽을 사실상 높게 쌓아놓고 있다.
3.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는 이전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구조로 부터 벗어나 점차 개방지향성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다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유화적 개방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곧 오늘의 서구적 사회구조로나 사회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사회개방을 이룩할 수 있는 접촉통로를 단일화하고 그것에 의한 차단막을 철저히 설치하고 있다. 즉

외교관계나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종사자들에게 대한 유연한 개방성을 보여주게 하면서도 주체적인 대응성을 모색하게 한다.

5. 결국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는 현실적으로 개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배격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개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역기능적 가능성을 최소로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정치경제의 분리적 지향

북한 체제에서 가장 주요한 변화의 성격은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정경일치 지향에서의 변화이다. 그들은 경제는 정치의 그릇이고 정치는 경제의 바탕이라고 믿고 있었다. 즉 정치와 경제의 일치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이 서서히 변모되고 있으며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들 양자간의 관계에서 분리적 성격이 들어나고 있다. 즉 경제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부분적 시장경제제도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낮은 차원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정치는 여전히 주체사상의 유일성에 입각한 철저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양자간의 갈등적 성격의 조성을 막을 수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최소한 북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북한 사회의 현상적 유지를 최대한 가능하게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난관이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현실성을 어렵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의 개방이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 사회의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경공업부문과 생필품부문에 대한 지원과 그 소비성향을 고양시킬 필요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경제만은 정치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북한에서는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자율적 경제 단위화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경제의 발전은 국제무역과 같은 봉상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화의 필요성은 국제

무역과 같은 면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이 자연히
외국의 자본을 유입하는 차관이나 자본의 진출을 유도하게
되었고 그러한 유도는 결국 경제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의
가능한 배제를 추구하게 되었다.

6. 북한 지배체제의 이념적 전환 시도—민족주의의 지향

북한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 처럼 항상성과 변용성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항상성은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이며 그것을 지원해주는 권력구조로서의 가족체적 전제주의의 요소는 사실상 그대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항상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뒷받침해 줄 사상적 체계는 변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구조에서 논의한 교차적 사회구조화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변모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요소는 역시 지배이념의 전환에 대한 시도이다. 왜냐하면 북한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이면서 이념을 전제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념적 변환은 가장 중요한 변용성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여기서는 먼저 북한에서 최근에 나타난 이념적 변용의 한 모습으로 김일성에 의하여 논의된 이른바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우선 북한사회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통적 맥락을 추

적하고 그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를 시급히 차용하고 있는 현실성의 미래적 외연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북한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북한 사회에서는 민족과 민족운동 그리고 민족문제와 민족주의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과 민족운동 민족문제 등은 그 가치성과 의미가 인정되고 있지만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여기서는 먼저 민족에 대한 그들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족의 개념

북한에서는 민족을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한 그들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의미한다”(정치사전:423)

“언어는 민족을 공통적으로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영토안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가 없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4권:1)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민족은 언어적 공유집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는 물론 역사적으로 같은 핏줄에 의한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의 의미는 전적으로 전통적인 혈연공동체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족은 헝사리 민중이나 인민과 같은 개념으로 동치되고 만다. 즉 민족의 구성원 속에는 부르조아와 같은 계급이나 중간층과 같은 계급적 의미와는 상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지 민족은 기본적으로 인민의 한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경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민족은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주성은 외국의 타민족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민족자결권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민족은 투쟁적 성격을 그 내용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투쟁은 타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는 민족간의 투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셋째, 민족이 민족으로서 확고한 자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 개화를 이룩하

기 위한 발전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 자주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여야만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 수 있다.”(정치사전:424)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은 바로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인민의 결집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족이 모두 대등하게 대우받게 됨으로서 더 이상 민족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는 민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과는 달리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판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민족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족주의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조아의 사상이다”(정치사전 :430)

민족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저작선집에서 더한층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여기서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다.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배치됩니다.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합니다.”(김일성 저작 선집 5권:236)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것 처럼 민족주의는 북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배격의 사상이며 부르조아지의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체계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단지 민족의 의지를 잘못 변형시켜 결국은 부르조아의 계급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게 한 이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의 올바른 이념은 오직 사회주의 뿐이며 설사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주의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그속에 부르조아라는 특성의 지배계급적 이익을 전체 민족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민족은 그 이념과 정신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사실상 사회주의를 민족과 일치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적실성은 이미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들은 민족주의를 이렇게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 민족주의는 민족내부의 불화와 갈등을 조성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불화의 근원은 민족주의가 부르조아의 사상이기 때문에 전체 민중의 이익과 이해에는 갈등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 민족주의는 강대국의 민족국가가 다른 나라의 약한 민족국가를 약탈하고 침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러한 역할을 통하여 강대국의 민족국가의 지배계급인 부르조아의 이익을 국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국제관계에서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주의로 나아가며 이는 곧 지배국가들의 민족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념적 바탕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성격을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로 지향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게 된다.

4. 민족주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민족주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민족 그 자체의 특이성이나 특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존립할 수 없으며 단지 사회주의 국제관계에서는 평등과 상호협조의 친선관계만이 존재하게 된다.

5.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와는 적대되는 사상이며 전체 민족적 이익과 노동자 계급이익과 배치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의 사상체계가

다.

6. 민족주의는 민족이기주의와 대국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중심주의적 사상체계의 근간이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조그마한 민족주의적 주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주의를 이렇게 규정한 후 북한은 민족주의를 다시 몇가지 성격으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민족주의의 유형화 이론

민족주의의 발생—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며,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제약하기 위한 반동적 사상체계

유형화의 구분

- 1. 대국 배타주의—지배하는 국가의 대국주의적 성격을 가짐.
- 2. 자본가 민족주의—지배받는 국가의 자본가 중심의 사상

위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사상체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민족주의에 대항하고 민족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귀일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민족문제>로 부터 민족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 사회에서는 민족주의가 배타적 대상임과 동시에 대단한 부르조아적 반동사상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문건에는 민족주의라는 말을 대신하여 민족문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민족주의는 배척하지만 민족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민족주의라는 말을 대신하여 민족문제라는 말을 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민족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민족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여 완전하게 정치적인 자결을 이룩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함으로써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대는 계급적 착취와 함께 민족적 억압이 지배하는 시대이며 극소수의 민족에 의하여 대다수 민족들의 자

유로운 발전이 억제되고 민족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시대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539)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문제는 전적으로 민족의 불평등에서 기인된 모든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민족문제는 제국주의적 침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문제의 기본인 민족적 불평등이나 민족의 억압 유린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대국주의의 결과로 파악한다. 바로 이점에서 북한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은 강대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로 하게 되고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민족의 해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한가지 밝혀져야 할 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해방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의 한 편린을 다음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문제 해결에서 근본문제로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이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을 세우며 자주성을 고수하고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립적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정치사전:425—6)

결국 북한은 민족을 인민이라는 계급과 일치시키고 민족 문제를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체제의 확립을 위한 일련의 정치경제적 지향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이념으로 정착되게 하였다. 민족과 민족문제의 중국적 귀일은 바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서는 민족이나 민족문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북한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나 주체사상 이외의 그 어떤 사상체계도 모두 부르조아 지배체제의 한 이념이나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설사 이러한 사상이 현실적이라 해도 그것을 반동적이거나 반시대적인 논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이러한 사상체계를 모두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 들어와서 심한 자체적 모순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먼저 앞에서 말한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전면적인 붕괴로 인하여 더이상 맑스·레닌주의를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반시대적이고 반인간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심각한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북한 역시 사상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정은 설사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는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자부하였고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주체사상이 있음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충분히 짐작되다시피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하자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북한체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이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비로소 북한 체제의 지속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모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념적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모색의 가장 구체적인 시도가 그들이 지금까지 비판하고 있었던 민족주의로의 탈출이었다. 즉 민족문제로부터 민족주의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할 것이다.

3) 민족주의 지향의 의도성

이미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부르조아 반동의 사상체제로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는 최근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건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문건은 지난 1991년 8월 1일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구성원들에 대한 김일성의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밝힌 것이다. 그 중요한 내용중에서 민족주의와 민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단한 변화의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민족은 비록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 감정입니다.”(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자)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김일성의 민족에 대한 인식에 다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민족을 계급과 동일한 차원에서 또는 계급인식을 전제로

하기 위한 시도로 논의했던 종전의 인식과는 달리 민족을 민족 본연의 의미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족이 고유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북한이 이전 까지만 해도 주장하였던 민족과 계급의 일치적 인식에 변화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른 또 한가지 특이성은 민족의 각이한 계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에 상위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민족에는 단지 민중적 성격을 가진 인민만이 민족의 구성요소였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계급이 함께 동일민족에 소속 할수 있다는 논지는 민족을 계급포용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성원은 모두 계급과 관계없이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민족구성원의 공통적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담화에서 이러한 인식은 대단한 변화의 한 단서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대한 일대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전의 민족의 개념에 의하면 노동자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해도 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고

려할때 김일성의 새로운 민족의 개념화는 일종의 정책적 지향의 한 변화를 예견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민족의 개념화와 함께 민족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김일성은 같은 연설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를 이전의 북한의 공식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여기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흥 부르조아들이 민족주의의 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 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신흥부르조아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조아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민족의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는 놀고 먹는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될수 있습니다.”(같은 글)

위의 글에서 주의 깊게 인식하여야 할 점이 다음의 몇가지 사실이다. 먼저 민족주의의 근본을 진보주의적 사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는 보수적이고 기존체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롭고 가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진보적 사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의 글에서 주의깊게 고찰되어야 할 사실은 부르조아지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이 일치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민족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공통적으로 대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의 이러한 단서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논의인데 봉건적인 시대로부터 벗어난 근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부르조아지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이 일치되는 상황이면 부르조아지의 사상인 민족주의도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누구가 민족주의자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놀고먹는 사람들 이외에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모두가 다 생산에 참여한다면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김일성의 이 글에서 놀랄수 밖에 없는 사실은 이전같은 노동자 계급의 단일적이고 전유적인 민족점유의 논리를 전개하고 민족문제에 입각한 민족해방을 전개하여 민족주

의자의 허구적인 반동논리를 분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논지는 처음부터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민족을 대단히 광범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노동자와 비노동자라도 같은 민족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이제 사회주의의 이상이나 주장만으로는 시대적으로 설득력을 상실하고 난 후 급속하게 그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그것도 민족주의의 전통성을 가진 지도자로 논리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일성은 실로 놀랄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그는 민족주의자이며 국제주의자라고 선언한 점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문건에서는 민족주의자가 반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 계급과의 적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실로 대단히 놀랄만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보기로 한다.

“우리 아버님께서서는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들을 애국주의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한평생 우리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

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글)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을 읽으면 그가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규정한 이유의 한 가닥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글에서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국제주의자는 동일적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참다운 민족주의자는 애국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애국의 정신은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김일성 자신은 어릴때 부터 애국주의자로 자랐으며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했던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헌신하였다.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주의라는 말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한계가 들어났고 심지어 소련과 동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불어 왔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치성으로 민족주의를 내걸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김일성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민족적 변안물이라

고 할수 있다. 즉 그의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민족주의자로 스스로를 변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위기에 몰려 있는 자신의 이념적인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민족의 통일문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4)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동원

김일성 스스로 민족주의자로 자처한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대남관계에 대한 유리한 위치에 서서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종의 통일전선전략의 성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이념적 구원이며 나아가 대남전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견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는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자신은 민족의 이익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투쟁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2. 김일성은 항일애국운동에서 애국적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으며 그것이 1936

년에 세운 조국광복회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조국광복회는 민족적 연대성에 의한 항일구국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광복회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그리고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이 모두 결속되었습니다.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전봉이 마련되었습니다”(같은 글)라고 적고 있다.

3. 항일운동에서부터 북한 정권수립과정에 자신만이 민족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지적하고 여기에 김구의 참여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정권이 가장 민족적 연대성을 가진 통합정권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4.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상을 김일성 자신의 민족주의적 연대성에 입각한 노력의 한 시도로 인식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의 논지로 문익환 등의 방북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지를 내세우면서 김일성은 결국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통일이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함께 김일성의 민족적 통일노력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통일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인용하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연방제 방식밖에 없습니다.”(같은 글)이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김일성의 논지는 그것만이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 통합하는 식의 옳지 않은 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같은 글) 이러한 주장에서 김일성이 의도하는 목적은 우선 남북간에 연방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남한에서 공산주의적 활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 그러한 조

건에 의하여 상황을 북한에 유리하게 전환시킨 후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한다는 요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남한의 지식인과 청년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김일성의 이상화적 선전과 나아가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로 부각시키고 북한의 통일방안이 민족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김일성의 주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남한에서의 목표는 그들의 체제에 대한 동조자들을 늘림과 동시에 스스로 민족주의자로 미화함으로써 공산주의자로서의 한계와 사회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위기를 넘어서려는 성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남한에서 통일의 수행에 유의해야 할 사회계급과 계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노동자 농민 인테리와 함께 각이한 생활 경위를 가지고 각이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족반역자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같은 글).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에 맞물려 한가지 살펴 볼 사실은 그의 이러한 주장이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건이나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민족주의적 지향성은 아직 다른 지도자들에 의하여 널리 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당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비록 김일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해도 다소 시간적 간격을 두고 논리화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지도자 중에서 김정일의 경우만은 김일성과 유사한 주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의 중요한 주장은 그가 1991년 8월 26일 청년절을 맞아 사로청 일꾼들에게 보낸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글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김일성과 비슷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여기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어 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입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대성에 있으며 지도사상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우월한 사회제도에 사는 인민만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될 수 있습니다.”(로동신문, 1991. 8. 27)

즉 김정일은 김일성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던 「조선에서의 민족주의」라는 말을 대신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표현은 곧 민족주의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러한 민족주의는 오직 김일성에 의한 역사적 전유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7. 결론: 북한지배체제의 미래 - 민족주의에 의한 위기탈출의 모색

북한은 1948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한 위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3중적 위기의 복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체 세계의 조류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의 급격하게 전락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의 파탄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 최고지도부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김일성의 자연수명의 한계와 그의 후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김정일의 세습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의 한계는 북한의 지배체제를 이른바 건국이후 최대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북한의 극복가능성과 붕괴가능성을 동시에 연계시켜 논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는 몇가지의 가능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고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려는 것이다.

1) 인식을 위한 몇가지 기준

어느 체제나 항상 고착된 사회구조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체제가 본질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외적 변화유도요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자체적 개혁과 발전에 의하여 그 체제를 지속시키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먼저 북한의 기존체제의 지속성과 붕괴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개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두가지의 정반대 사항을 가정하고 이를 양극으로 하여 각각 그 양극간의 변이도를 고찰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다. 그 하나는 기존의 체제가 유지 발전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붕괴로 이어질 경우이다. 이 두가지 경우를 가상할 때 이들 양극사이에는 상당한 변이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해진다.

북한 지배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형

체제유지 체제변화의 기간	지속적 가능성	변용 가능성
점진적 변화	안정적 체제유지	장기적 체제소멸
급격한 변화	체제내적 변혁	단기적 체제붕괴

위의 도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지배체제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미래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

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정적 체제유지-북한의 현실적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자체내의 변혁적 지향성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상당기간 이 체제를 지탱시켜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의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자체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경우이다.
2. 체제내적 변혁-북한의 지배체제의 내적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지배체제를 대신하거나 또는 새로운 보완적 강화조치를 발생시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제적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경우이다.
3. 장기적 체제 소멸-이는 북한의 체제가 사실상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고 위기의 누적현상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대치할 아무런 사회세력이나 변혁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경우 결국은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4. 단기적 체제 붕괴-북한의 체제에 대한 일반 민중의 불만의 누적현상으로 이른바 아래로 부터의 폭동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체제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을 급격하게 조성시키게 되는 경우이다.

위에서 구분한 4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가능한 현실성과 북한의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체제 변혁의 가능 순위

북한 체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위기의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도식을 만들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북한 지배 체제 변혁의 가능순위

	체제유지	체제내적변혁	체제소멸	체제붕괴
지배이념	+++ -	+ - - -	++ - -	+ - - -
지도체계	+++ -	++ - -	+ - - -	++++
사회구조	+++ -	++ - -	+ - - -	++ - -
통치양식	++ - -	+ - - -	+ - - -	+ - - -
경제수준	++ - -	+ - - -	++ - -	- - - -
	13/7	7/13	7/13	8/12

* 주: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로동신문과 근로자, 민주전선 등 선전문건을 1988 - 1991년 8월까지 항목별 내용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위의 도표는 체제의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배이념, 지도체계, 사회구조, 통치양식, 경제수준 등이 대내외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인식될 수 있다. 즉 기존 체제유지에 지배이념이나 지도체계, 사회구조, 통치양식, 경제수준 등이 그 본질적 속성상 기여적이라고 인식될 경우 이를 +로 표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그 결과를 총합한 것이 아래의 숫자로 +표와 -표의 편차를 /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북한 지배체제의 속성과 구성요소로는 자체내의 현실적 체제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외적 충격에 대한 대응성이 낮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바꿔 말하면 지금의 사회통치양식이나 내용으로는 북한의 사회구조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이 그대로 앞에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지배체제는 현실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금 북한의 지배체제의 변화가능성 중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1. 북한은 현재 기존의 지배체제로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체제내적 상황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내의 급격한 변혁의 가능성과,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를 대신할 공산당내의 세세력들 예를 들면 군부세력이나 관료세력에 의한 자체내적 변혁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2. 만일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가 자체적으로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북한의 지배체제는 사실상 일정기간(여기서는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약 10년이내로 한정할 수 있다)이 지난 후에는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3. 북한의 사회구조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폭동이나 일종의 투마니아와 같은 민중 유혈혁명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은 이미 앞에서 말한 가족체 전제주의의 속성과 교차적 사회구조의 성격으로 인한 민중의 봉제양식의 치밀함에서 기인된 인식이기도 하다.

3) 민족주의에 의한 위기탈출의 모색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의 지배체제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조치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

는 사실이 주체사상에 의한 이념적 강화의 새로운 시도이며, 그것에 의하여 외국의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과 자본의 도입을 도모하고 나아가 다소의 개방을 유도하여 마치 현재의 중국과 같은 이른바 '정치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자본주의'라는 혼합형의 부분적 이행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로 나아갈 때 북한은 이전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적실성을 가질수 없게 된다. 바로 이점에서 북한의 지향은 이념적으로 새롭게 사회주의와 가장 친화력이 강한 이념적 모색이 시작될 것이며 그러한 모색의 일차적인 가능성이 바로 민족주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북한의 김일성에게는 3중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지적하면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미화하여 이를 마치 민족운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류적인 것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의 민족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종말의식에 편승하여 소위 김일성 사상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소련이나 동구와는 다른 북한 지배체제의 독자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일성에 의한 민족주의의 주장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한국에 대한 이른바 통일

민족전선의 형성에 크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은 한국을 마치 반민족적 친미 배판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고 민족주의적 주체로 북한이 주장함으로써 한국내의 일부 지식인이나 젊은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은 김일성이 말한 민족주의에의 주장을 적절히 변용시켜 이를 통한 자기 체제의 강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체사상과 김일성 지배체제의 새로운 자기수정의 가능성 까지 모색하게 되는 여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김일성이 민족주의를 전체 민족의 정서적 의지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는 이러한 주장의 효과와 견주어 직접 연계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는 결국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에 의해서 이른바 '민족사회주의'나 또는 '사회 민족주의'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①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자주성을 강조하고 ②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위기를 부분적 시장체제로 변용하면서 ③ 대남전략으로는 민족주의에 의한 한국사회의 분열과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민족주의의 원용은 기본적으로 위기탈출의 모색임과 동시에 새로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체제화에 의한 민족사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카리스마로 귀결시키려는 새로운 상황으로 지향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국 내 문 헌>

1. 강인덕외, 북한정치론, 극동문제연구소, 1980.
1. 강혜련, “주체사상의 역사발전론에 대한 비판”, 미발표 연구노트, 1991.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의 통일전망, 1986.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정치체제연구, 1972.
1.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사상, 1991. 봄.
1.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1968.
1. 국토통일원, 김일성 연구, 1976.
1. “ 김일성 연구논총, 1976.
1. “ 김일성 주체사상 관계자료집, 1976.
1. “ 김일성 주체사상 형성과정, 1977.
1. “ 주체사상 허구성에 대한 철학적 비판, 1978.
1. “ 김정일 논문비판, 1987.
1. “ 북한의 정치이념과 체제연구, 1984.
1. “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 총람, 1985.
1. “ 북한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실천개념과 민족적 주체의식의 문제, 1970.

1. 김갑철, 북한정치이데올로기 분석, 1977.
1. 김갑철,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1989.
1. 김갑철, 주체사상과 북한의 현실, 국제정치논총, 1989.
1.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 통일문제연구, 1991.
1. 김창순, 공산주의 민족이론과 정책비판, 1982.
1. 도홍렬, “북한의 사회구조와 체제변화 전망”, 통일문제 연구, 1989, 봄.
1. 박체용,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정책, 문우사, 1991.
1. 박한식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1991.
1. 북한연구소, 북한정치론, 1976.
1. 서기준, “동구의 개혁과 북한사회체제의 방향”, 통일문 제연구, 1990.
1. 서대숙, “북한은 어디로”, 계간사상, 1989, 가을.
1.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반도통일운동의 과제와 그 방향, 1991.
1. 손호철, “주체사상의 연구방향에 관한 일제안”, 국제정 치논총, 1989.
1.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1987.
1. 양호민, 북한 주체사상 이론체계 연구, 1979.
1. 연세대 북한현대사 연구회, 북한현대사, 1989.
1. 유병열, “북한정치체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사회와 사상, 1989,

1. 이규열, “북한의 대남인식변화”, 통일문제연구, 1991. 봄.
1. 이상두, 남북한 이데올로기와 정치, 1986.
1. 이상우외, 북한 40년, 1988.
1. 이용필, 북한정치, 1982.
1. 이우정, “최근 북한권력엘리트 변화와 정책전망”, 통일문제연구, 1989. 여름.
1. 이태욱, 북한의 경제, 1990.
1. 임양택, “북한경제의 개방및 개혁전망”, 통일문제연구, 1991. 봄.
1. 임체완, “북한 주체사상의 인식론적 기초분석”, 호남정치학회보, 1989.
1. 전인영, 북한의 정치. 1990.
1. 정용욱등,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1989.
1. 정우곤,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990. 봄호.
1. 정천구,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1991. 여름.
1.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이론구조, 1983.
1. 최동희, “북한의 변화가능성” 통일문제연구, 1990.봄.
1. 최완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1991. 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통치이데올로기연구, 1984.

<국외 문헌>

1.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1983.
1. Cummins, I. *Marx Engels and National Movement*, Croom Helm, 1980.
1. Evans, R.J., *Proletarians and Politics*, Harverstr, 1989.
1. Laclau, E., *New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 1990.
1. Parekh, B., *Marx's Theory of Ideology*, Johns Hopkins, 1982.
1. Sathyamurthy, T.V., *National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Osmun, 1983.

<북한 문헌>

1. 김일성 저작집
1. 김일성 저작 선집
1. 맑스 엥겔스 선집
1. 주체사상 총서
1.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주체 철학연구의 몇가지 문제
1. 경제사전
1. 상치사전
1. 역사사전

1. 철학사전

1. 조선통사

1. 정치용어 사전

1. 민주조선,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중앙년감.

1. 강운빈, 주체사상의 창시와 역사적 의의, 1983.

1. 조선로동당,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당의 방침,
1961.

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1. 이성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1983.

1.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1987.

북한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인쇄일 1991년 12월 26일

발행일 1991년 12월 30일

발행처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양동문화사

통분 91-12-84

(비매품)